

보도시점 2023. 4. 12.(수) 09:00 배포 2023. 4. 12.(수) 09:00

## 제4차 일자리 전담반(TF) 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4.12(수)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 ① 3월 고용동향(통계청, 제목만 공개)
- ② 빈일자리 해소방안 추진실적 및 추가 과제(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 ③ 직접일자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       |                  |     |                           |
|-------|------------------|-----|---------------------------|
| 담당 부서 | 경제구조개혁국<br>인력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김시동 (044-215-8530)    |
|       |                  | 담당자 | 사무관 김요균 (cooper@korea.kr) |
|       | 고용노동부<br>고용정책총괄과 | 책임자 | 과 장 홍정우 (044-202-7210)    |
|       |                  | 담당자 | 서기관 이지은 (je9167@korea.kr) |

제4차 일자리 TF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3월 고용동향 >**

방금 발표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62.2%, 실업률은 2.9%를 기록하는 한편,  
취업자수는 작년동월대비 46.9만명 증가\*했습니다.

\* 취업자수(전년비, 만명) : ('19)30.1 ('20)△21.8 ('21)36.9 ('22)81.6 (3)83.1 ('23.1)41.1 (2)31.2 (3)46.9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역대 3월 중 최고, 최저 수준이며,  
취업자수도 25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최근 고용상황은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 15세 이상 고용률(%) : ('19)60.9 ('20)60.1 ('21)60.5 ('22)62.1 ('23.1)60.3 (2)61.1 (3)**62.2**

이는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일상회복에 따른  
대면활동 증가 및 돌봄수요 확대 등으로  
숙박음식업과 예술·스포츠업, 보건복지업 등 분야에서  
취업자수가 증가\*한 데에 기인합니다.

\* 숙박음식업 취업자수(전년비, 만명) : ('21)△4.7 ('22)8.4 ('23.1)21.4 (2)17.6 (3)**17.7**  
예술·스포츠업 취업자수(전년비, 만명) : ('21)△2.9 ('22)1.5 ('23.1)2.3 (2)2.8 (3)**3.2**  
보건복지업 취업자수(전년비, 만명) : ('21)19.8 ('22)18.0 ('23.1)22.0 (2)19.2 (3)**18.6**

3월 청년 고용률은 46.2%로 전년동월대비 소폭 하락(△0.1%p)했으나,  
역대 3월 기준 2위를 기록하는 등 과거대비 양호한 수준입니다.  
아울러, 청년 취업자수는 인구감소 및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도소매업·제조업·운수창고업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폭은 소폭 완화되었습니다.

\* 15-29세 고용률(%) : ('22.3)**46.3** (6)47.4 (9)46.6 (12)45.9 ('23.1)46.1 (2)45.5 (3)**46.2**  
15-29세 취업자(전년동월비, 만명): ('22.3)**17.7** (6) 10.4 (9) 1.6 (12)△2.5 ('23.1)△5.1 (2)△12.5 (3)**△8.9**

\*\* 청년 인구 증감(전년비, 만명): ('22.3)△19.2 (6)△21.6 (9)△20.8 (12)△21.1 ('23.1)△18.9 (2)△19.1 (3)**△18.1**

앞으로도 고용률·실업률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작년 이례적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및 글로벌 금융 불안의 실물경기 파급 가능성 등으로 인해 취업자수 증가폭은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3월 고용동향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집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지난 3월초에 발표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에 대한 추진실적 및 추가 업종 지원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 < 직접일자리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먼저, 정부는 직접일자리 사업 조기집행을 통해 연간 계획 104.4만명 중 1분기까지 약 92.8만명(잠정치)에 대한 채용을 완료하여 당초 1분기 계획 92.4만명을 초과달성 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분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99.4만명 이상 채용(연간 계획인원의 95.2%)을 목표로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 < 빈일자리 해소방안 추진실적 및 추가 과제 >

'23년 2월 기준, 빈일자리 수\*는 1월 소폭 감소 후 다시 21만명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조선업·뿌리산업·보건복지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빈일자리수(만명) : ('19)17.8 ('20)12.7 ('21)16.3 ('22)21.4 (12)20.8 (23.1)17.9 **(2)21.0**

이에따라, 지난 3.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합니다.

우선,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 대상으로 신속취업지원 TF를 설치하여 지난 8월 이후 올해 3월말까지 1.3만명의 채용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을 통한 일자리 매칭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1,500명 확대\*되었습니다.

\* 채용지원 실적 12,663명('22.8.1 ~ '23.3.29) → 전년동기 대비 약 1,500명(13.7%) 증가

또한, 작년 8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는 3월 28일부터 운영 대상 센터를 6개에서 24개로, 기업 도약보장패키지는 9개에서 35개로 확대하여 구직자와 기업들이 진단부터 컨설팅, 채용지원 서비스까지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구직자·기업 도약보장패키지) 기업과 구직자에게 각각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고용서비스를 종합 지원(양 패키지 모두 연내 48개 센터에서 제공 실시 계획)

업종별로는 조선업 희망공제 사업을 3월부터 본격 개시하는 등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패키지 지원방안을 신속히 시행하는 한편, 택시·버스 인력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및 재정지원 등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대 최대규모로 확대한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쿼터도 신규 도입 쿼터 8만명\* 중 60%인 4.8만명에 대해 상반기 배정을 완료하는 등 인력부족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공급도 신속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 단순외국인력(E-9) 쿼터(만명): ('22) 6.9만명 (신규 5.2, 탄력0.1, 재입국1.6)  
('23) 11.0만명 (신규 8.0, 탄력1.0, 재입국2.0)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국내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을 추가 선정하여 인력유입 유도 및 양성, 근로조건 개선, 매칭지원 강화 등을 위한 세부추진 방안을 논의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행점점을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논의내용을 구체화하여 추가적인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모두말씀 종료)